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8년 3분기

Vol.16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 국가회계 동향

- 국가회계제도개선 TF 추진
-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18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과정)
-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재정통계 동향

- 2017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 2018년 K-IFRS 기준서 개정
- 2019년 예산안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 OECD 회원국의 재정수지 및 부채 동향

| 공익법인회계 동향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연구용역 최종보고
-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교육 발표

| 센터 동향

- 국가회계 자문위원회 신규(재) 위촉
- 위탁과제 「추정재무제표 마련 및 시스템 구축방안」 중간보고

-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5차 월례회의
-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3-9차)
- 2018년 디브리언 시스템 개선 회의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업무협약 체결
-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중간보고심의회 개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공동주최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 세미나

| 2018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출장 후기

| 공지사항

- 『국가회계편람』 발간 공지
-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년도 재무정보 업데이트
-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신청 안내
- 뉴스레터 구독 안내
- 홈페이지 이용 안내



Kipf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8년 3분기

Vol. 16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01. 국가회계 동향	2
① 국가회계제도개선 TF 추진	2
②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3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6
① 2018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6
②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과정)	7
③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9
03. 재정통계 동향	10
① 2017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10
② 2018년 K-IFRS 기준서 개정	19
③ 2019년 예산안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23
④ OECD 회원국의 재정수지 및 부채 동향	27
04. 공익법인회계 동향	29
①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연구용역 최종보고	29
②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교육 발표	31
05. 센터 동향	32
① 국가회계 자문위원회 신규(재) 위촉	32
② 위탁과제 「추정재무제표 마련 및 시스템 구축방안」 중간보고	33
③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5차 월례회의	34
④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3~9차)	34
⑤ 2018년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 회의	37
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업무협약 체결	38
⑦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중간보고심의회 개최	40
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공동주최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 세미나	42
07. 2018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출장 후기	46
08. 공지사항	56
① 『국가회계편람』 발간 공지	56
②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년도 재무정보 업데이트	56
③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신청 안내	57
④ 뉴스레터 구독 안내	58
⑤ 홈페이지 이용 안내	58

01 국가회계 동향

1 국가회계제도개선 TF 추진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안건 및 쟁점사항 제시를 위해 하반기 T/F(이하 'T/F')를 구성하였다. 본 T/F는 국가회계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6건, 검토안건 2건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9월 13일(목) 센터 내 중회의실에서 1차 T/F를 진행하였으며, 1차 회의에서 국가회계기준 및 예규 개정 안건별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F를 통해 논의가 완료된 과제는 차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본회의 상정 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로서, 국가회계 제도개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1차 T/F를 시작으로 4분기에 2, 3차 T/F와 총 3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회계제도 T/F 개선과제〉

관련 법령 및 예규		개선 검토 사항		
1	용자 회계처리지침	전체	용자금을 '저리용자금'으로 용어 수정 유효이자율 정의 삭제 적용대상 판단기준 '실행당시' 조건	의결
2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	다수 문단	사용수익권 자산차감계정 VS 부채 사용수익권 평가 개선	의결
3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등	문단 13, 14	비배분수익비용 정의 비배분수익비용 구분	의결
4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지침	문단 13	자산·부채에 이관 없이 명칭만 변경되는 조직개편 회계처리	의결

관련 법령 및 예규		개선 검토 사항		
5	금융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10	신종자본증권, 투자일임계약	보고
		실무해설 신설	무상증자 등 자본전입 시 출자금 회계처리	보고
6	계정과목해설서	기타비용	소송충당부채전입액 정의 오류	보고
7	수익·비용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	지출금반납금 이자의 처리	보고
8	연금 회계처리지침	보도자료	공무원연금 지방직 등 정보 세분화	보고
		실무해설	장기재정전망 등 재무적 가정 적용 명시	보고
9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검토
		제2조의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검토

2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¹⁾

가. IPSASB, 2018년 9월 정례회의 개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는 2018년의 세 번째 정례회의를 2018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캐나다 토론토의 캐나다 공인회계사협회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Technical Director의 업무계획 보고, 위원별 아웃리치 활동 결과보고 등 현안에 관한 보고와 함께 IPSASB가 현재 추진 중인 '사회보장급여', '비교환비용', '개선과제', '공공부문의 측정', '수익', '전략', '리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다. 프로젝트별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프로젝트	번호	주요 내용
사회보장 급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를 현금의 이전(cash transfer)으로 제한 ■ 의무발생사건접근법(Obligating Event Approach) 관련 인식, 측정, 공시사항에 대한 논의 ■ 보험접근법에 대한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서를 작성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
비교환 비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서비스(universally accessible services) 대신 individual services 사용 ■ reimbursement와 voucher가 사회보장급여가 아니라는 논거 제시 ■ ED에서 재난 구호(disaster relief)와 관련된 부분의 개발 방향 제시 ■ 수행의무가 있는 보조금, 기여금, 기타 이전에 대해 PSPOA를 적용해야 하는지 논의
개선과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l Improvements to IPSAS, IASB Improvements, 기타 이슈 검토 ■ 기준서 승인 및 발효일자 결정(2019년 1월 1일 예상)
공공 부문의 측정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IPSAS에서 측정기준을 선택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지, 측정 IPSAS에서 측정기준의 정의 및 적용방법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 ED와 CP의 내용 수정에 대한 논의 ■ IFRS 13, <i>Fair Value Measurement</i> 중 계속 유지하고 IPSAS에 포함해야 할 지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상품 T/F의 의견 참고
수익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테고리 C 수익거래를 다루는 ED 부분 검토 및 개발 방향 제시 ■ IPSAS 9(Revenue from Exchange Transactions)와 IPSAS 11(Construction Contracts)을 IFRS 15에 기초하는 새로운 기준서로 대체함으로써 수정되어야 하는 타 IPSAS에 대한 수정사항 검토 및 승인 ■ IPSAS 23(Revenue from Non-exchange Transactions)에서 수증용역(Services In-kind) 회계처리의 재작성 요건에 대한 논의
전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posed Strategy and Work Plan(2019~2022)에 대한 응답 분석 (SMC1) 전략 목표 (SMC2) 전략 주제 (SMC3) 프로젝트 우선순위 요건 (SMC4) Theme A: 공공부문 특유 이슈에 대한 기준 제정 (SMC5) Theme B: IFRS와의 정합성 유지 (SMC6) Theme C: 재무제표 이용자의 더 넓은 재무보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침 개발 (SMC7) Theme D(IPSAS 도입 및 이행의 장려) & Theme E(PFM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주의의 이점을 홍보)
리스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64, '리스'의 응답 분석 (SMC1) 리스이용자가 사용권(right-of-use) 모델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SMC2) 리스제공자가 'risk and rewards'의 모델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지 (SMC3)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동일하게 사용권 모델 적용에 동의하는지 (SMC4) concessionary lease에 대한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 동의하는지

IPSASB는 IPSASB 홈페이지(<http://www.ipsasb.org/meetings/ipsasb-meeting-21>)를 통해 9월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프로젝트별 세부 안건들과 안건별 논의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나. IPSASB,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 발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는 2018년 8월 14일에 새로운 금융상품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서인 IPSAS 41, '금융상품'을 발표하였다.

IPSAS 41, '금융상품'은 IPSAS 2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는 기준서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정보의 유용성을 충분히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 개선사항이 적용되었다.

- 금융자산에 대한 단순화된 분류 및 측정 규정
- 기대손상모형(a forward looking impairment model)
- 유연성 있는 헷지회계모형

IPSAS 41은 IASB가 개발한 IFRS 9, '금융상품'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공공부문 특유의 지침과 적용사례도 담고 있다.

- 비교환거래를 통해 발행된 금융보증
- 저리용자금(Concessionary loans)
- 비교환거래로 발생한 지분상품
-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사항

Ian Carruthers IPSASB 위원장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정부의 채무가 갖는 중요성이 때때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발표한 IPSAS 41은 금융상품 회계처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노출된 IPSAS 29의 문제점들에 대응한 결과이다. IPSAS 41은 규정 중심의 접근법을 취했던 기존과 달리 금융상품에서 비롯되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IPSAS 41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조기 적용이 권장된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8-08/ipsas-41-released-improve-financial-instruments-reporting>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1 2018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2018회계연도 중간점검 설명회(9.19),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2018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하여 계정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사전점검을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점검에서는 특히 2017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및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익 적정성 검토' 및 '지출금반납금의 잡이익 계상 오류 검토' 등 2개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내부거래 제거', '건설 중인 자산 적정성 검토', '계정과목 선택 오류 검토' 등 3개 항목이 작년과 동일하게 점검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중간점검은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회계처리를 대상으로 하며, 각 회계·기금별로 자체점검보고서를 10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단, 디브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디브레인

연계기관)들은 10월 24일까지 내부거래 대상 자료를 디브레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자체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중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9월 19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각 부처 담당자들의 중간점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를 취합, 분석하여 부처별 점검 실적을 확인하고, 점검 실적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체 보고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2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과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회계연도 국가재무결산을 앞두고 오는 11월에 중앙부처 재무결산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회계 전문교육(재무결산실무 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재무결산 절차 및 유의사항 등 교육을 통해 2018회계연도 재무결산 업무 수행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 참석자는 본 교육을 통해 올해 국가결산의 방향과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학습하게 된다. 교육 1일차에는 「①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 ② 국가재무결산의 이해 ③ 수정전 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을, 2일차에는 「① 내부거래제거 실무 ② 결산조정분개 ③ 결산보고서 작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 강사로는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본 센터 결산교육팀 연구진이 참여한다. 결산교육팀은 국가결산 업무와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에 신설된 조직으로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서울과 세종에서 각각 2일간 진행되며,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edu.kipf.r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무결산실무 과정 일정〉

지역	일정	시간	장소	정원
세종	11. 8.(목) ~ 11. 9.(금)	09:30 ~ 17:3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00명
서울	11. 15.(목) ~ 11. 16.(금)	09:30 ~ 17:30	전국경제인연합회관	100명

〈재무결산실무 과정 커리큘럼〉

일자	교육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2018회계연도 결산 개요	1.0	1. 기준개정사항, 조직개편 관련 사항 등
	국가재무결산의 이해	2.5	1. 국가재무결산 개요 및 절차 2.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비교 3.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 4. 국가재무제표의 이해
	수정전 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	3.5	1. 재무장부 조회 및 점검방법 2. 수정전 시산표 마감 및 유의사항
2일차	내부거래실무	1.5	1. 내부거래의 의의 2. 내부거래 제거방식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결산조정분개	2.0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의 유형과 결산조정분개 사례 3. 국가회계 결산보고서 작성(결산조정분개)
	결산보고서 작성	3.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방법 및 유의사항 3. 총잉여금, 재정운영결과조정표, 자산부채조정명세서

3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을 발간하였다. 이번 책자는 작년에 발간했던 『2017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에 감사원 지적사항, 『국가회계편람』 개정 사항 및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새로이 반영하였다. 또한 작년과 달리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결산담당자용’과 ‘업무담당자용’으로 책을 나누어 인쇄할 예정이다.

결산담당자용은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와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 및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 등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에서는 과거 7년간(2011~2017년) 감사원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 중앙관서별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빈번히 발생한 지적사례 20개를 연례적 지적사례로 선정하여 각 사례별로 감사원 지적 발생원인과 점검 및 조치방안을 서술하였다. 과거 발생한 감사원 지적건수의 78%가 연례적 지적사례에 해당하므로, 결산담당자가 이를 활용하여 2018 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다면 감사원 지적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에서는 수정전 시산표 마감 전부터 결산서 발행까지 결산업무 단계별로 발생하는 오류유형 및 오류정정 방법 등을 제시하여 결산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담당자용은 ‘수입·지출 오류사례’, ‘국유재산·물품 오류사례’ 등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담당자가 디브레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오류정정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여, 업무담당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제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나 디브레인 게시판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03

재정통계 동향

1 2017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고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다. 2017회계연도 결산 대상 준정부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83개 기관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 8월 국회에 제출된 2017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서 내용을 바탕으로 결산결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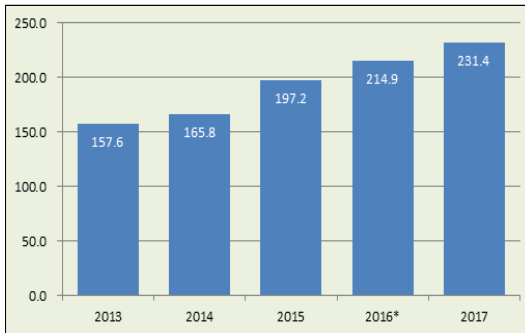
2017회계연도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231.4조원, 부채는 191.7조원이고, 매출액은 137.1조원, 당기순이익은 3.0조원이다.

가. 자산과 부채

준정부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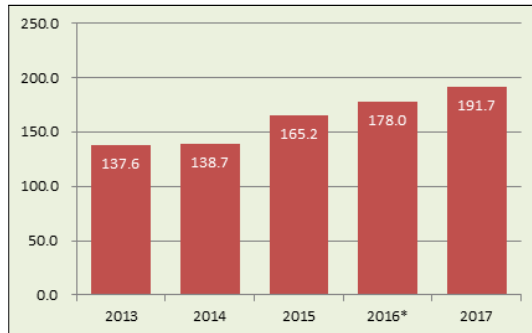
〈 준정부기관 자산 〉

(단위: 조원)



〈 준정부기관 부채 〉

(단위: 조원)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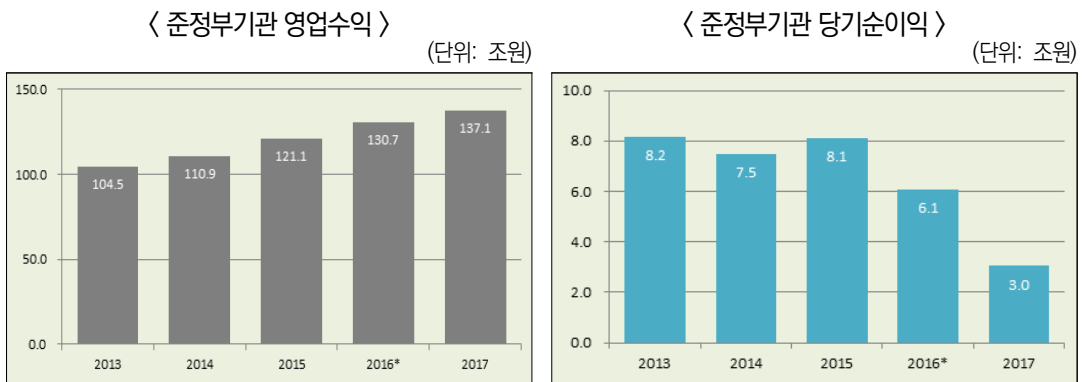
출처: 국회 제출 결산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대출채권 증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순이익 발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회계연도에는 총자산 변동액 16.6조원 중 15.6조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산변동에 따른다.

준정부기관의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파산배당으로 인한 자금을 재원으로 예특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부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나. 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출처: 국회 제출 결산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직장가입자 수 증가, 보수월액 상승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13년 41.6조원, 2017년 53.7조원으로 4년 동안 12.1조원 증가), 국민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의 출연금수익도 증가하였다(2013년 13.6조원, 2017년 19.6조원으로 4년 동안 6.0조원 증가).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6년 및 2017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2013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을 검토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수의 증가 및 체납진료비 환수 고지 증가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2.5조원 증가)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금융기관 자금지원 감소로 관련 대손상각비가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4.0조원 증가)하였다.

한편, 2016년 이후 당기순이익은 2016년 이후 의료수가 인상 및 의료보장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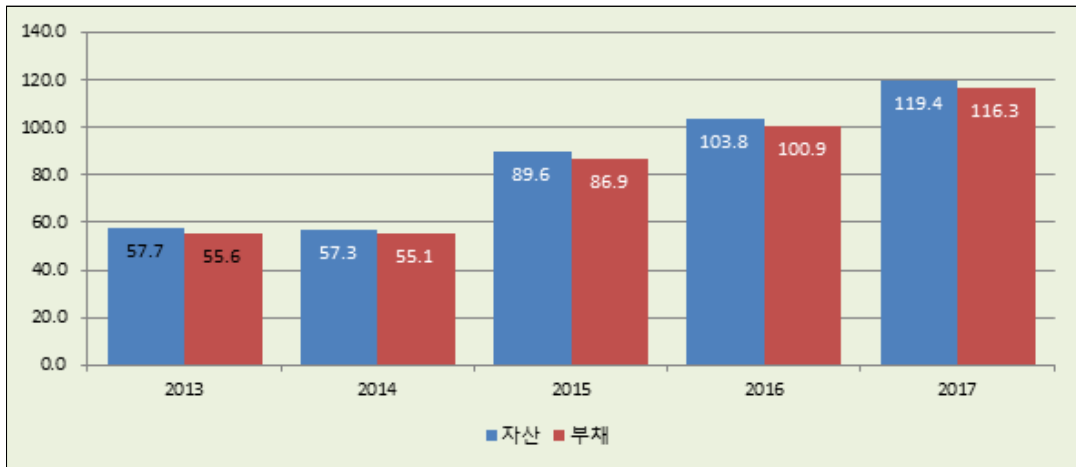
다. 주요 준정부기관 증감 분석

1)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7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채 중 60.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 자산 · 부채 〉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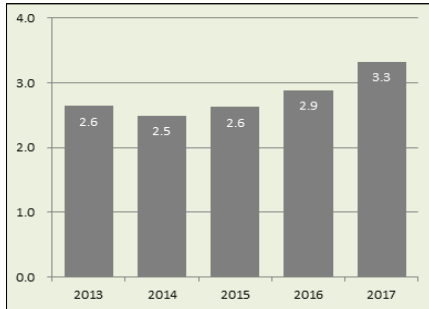


출처: 국회 제출 결산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저금리,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시행으로 인해 자산과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인한 대출채권 증가 및 주택저당증권 발행으로 인한 유동화부채 증가로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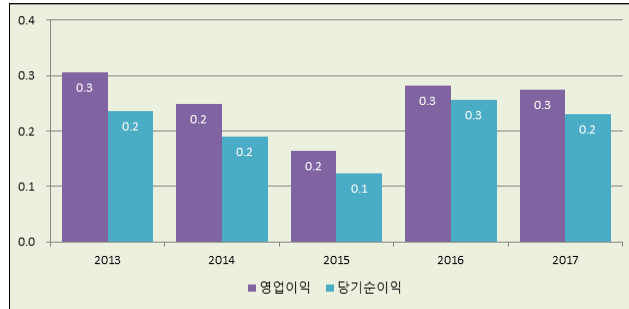
〈 영업수익 〉

(단위: 조원)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단위: 조원)



출처: 국회 제출 결산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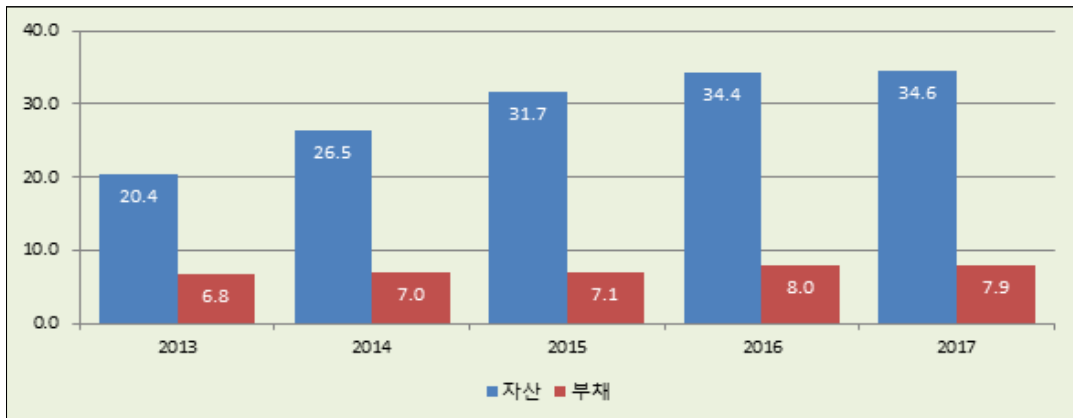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대출채권 이자수익이 늘어 영업수익이 증가했지만, 유동화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동시에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7년 당기순이익의 경우 파생상품손실 및 법인세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채 중 4.1%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 자산 · 부채 〉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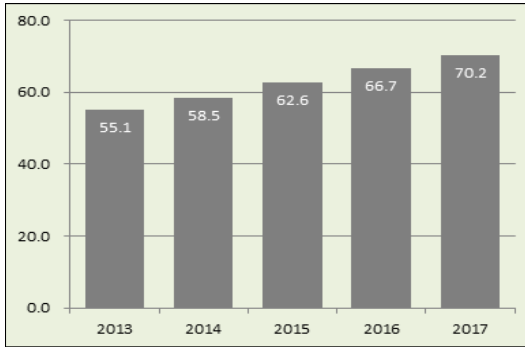


출처: 국회 제출 결산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보험충당부채 인식으로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보험급여비 지출액 증가로 보험급여비 충당부채 설정액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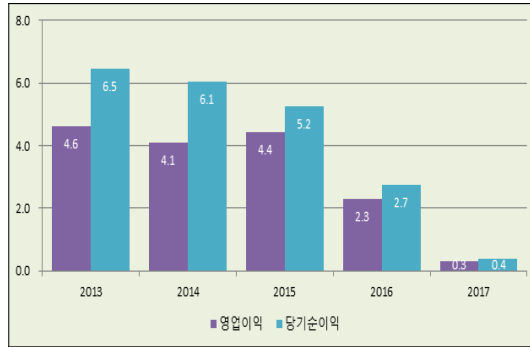
〈 영업수익 〉

(단위: 조원)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단위: 조원)



출처: 국회 제출 결산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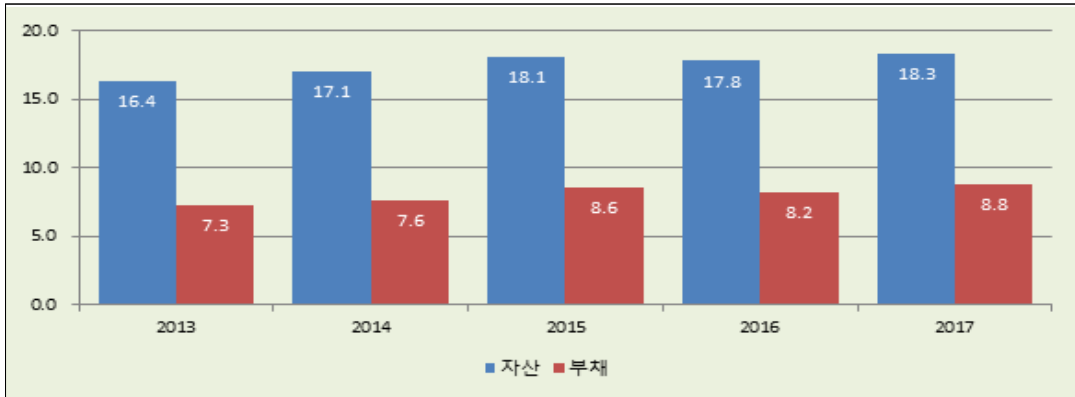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직장가입자 수 증가, 보수월액 상승 등으로 보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수가 인상 및 의료보장 확대에 따라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7년에는 영업수익 증가분에 비해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 관련 비용 증가로 영업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조원 감소하였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7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7.9%, 총부채 중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 자산 · 부채 〉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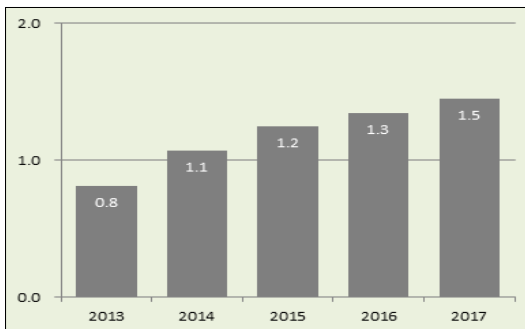


출처: 국회 제출 결산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비유동자산이 자산의 97%를 구성하며, 대부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및 부채는 고속철도 자체 사업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영업수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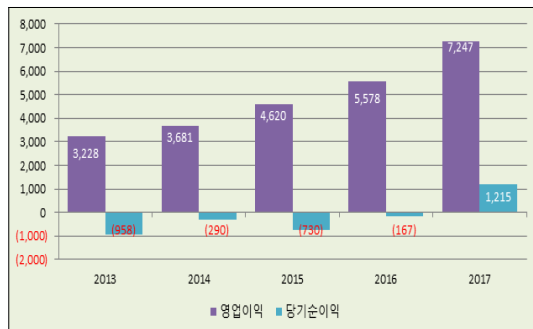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국회 제출 결산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단위: 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영업수익은 선로사용료 및 임대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순선로사용료가 고속철도 자체 사업비 조달을 위한 채권 이자에 미달하여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다만, 2017년에는 철도운영자 경쟁체제 도입(SR 운영) 및 수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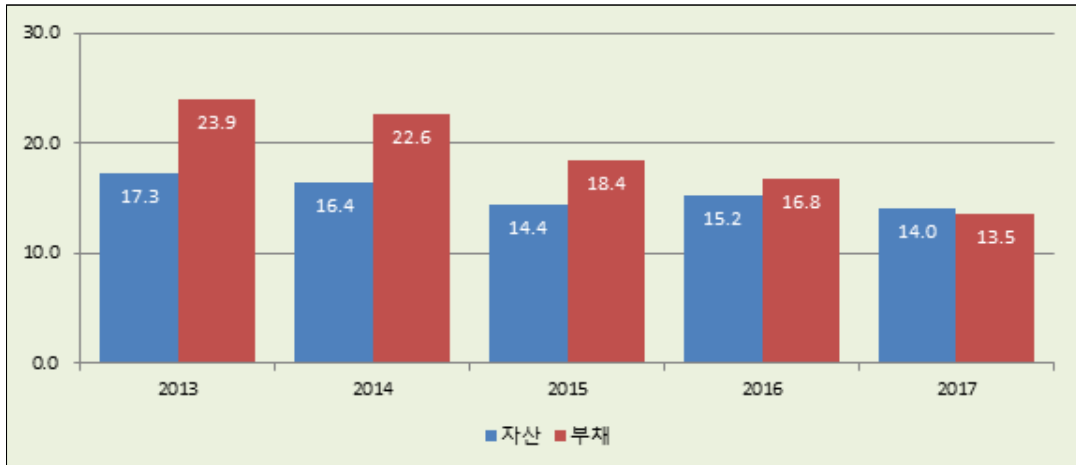
고속철도의 이용객 증가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고속철도 선로사용료가 대폭 증가하여 공단 최초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4)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2017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6.0%, 총부채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 자산 · 부채 〉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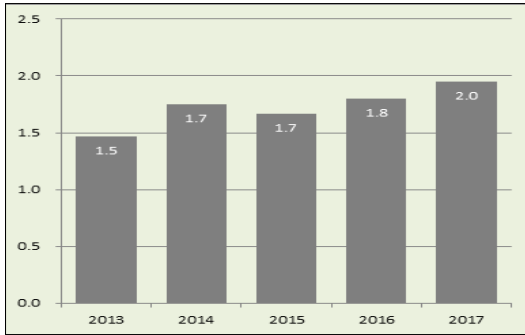


출처: 국회 제출 결산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예금보험공사의 자산은 큰 변동이 없으나, 부채의 경우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부채가 증가하여 자본잠식 상태이다. 예금보험료, 파산배당, 이월자금 등으로 지속적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여 2017년에는 저축은행 사태(2011년)로 인해 발생한 순자산 부족 상황이 6년 만에 해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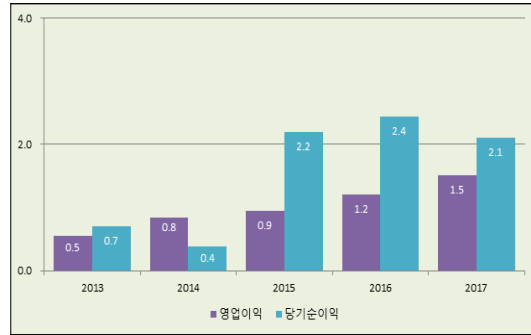
〈 영업수익 〉

(단위: 조원)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단위: 조원)



출처: 국회 제출 결산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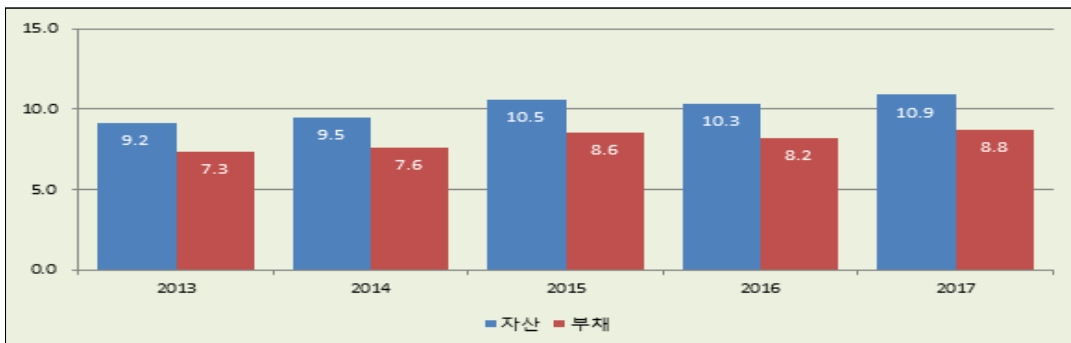
예금보험공사의 영업수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금융부채 상환으로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2017년에는 부동산 경기 상승세 둔화 등 파산재단 보유재산 평가이익 규모 감소 요인으로 영업외손익이 0.6조원 감소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5)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4.7%, 총부채 중 4.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 자산 · 부채 〉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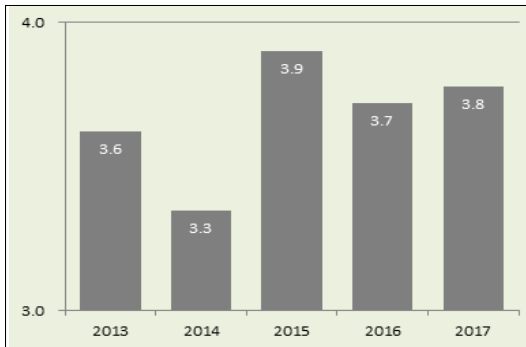


출처: 국회 제출 결산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 종전부동산 매입·처분사업 및 농지은행사업 등으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고, 사업비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으로 부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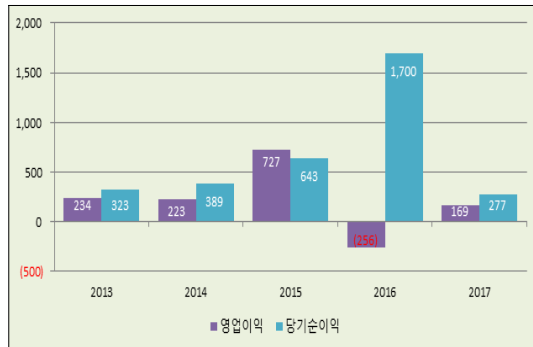
〈 매출액 〉

(단위: 조원)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단위: 억원)



출처: 국회 제출 결산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 사업종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2014년을 제외하고는 권역단위 사업 확대로 매출이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에는 구사옥 매각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각 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기관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기금계정 재무정보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18년 K-IFRS 기준서 개정

가. K-IFRS 기준서 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수행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K-IFRS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K-IFRS의 제·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에 영향을 미친다(「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제5항).

(참고) 관련법 및 규칙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K-IFRS 기준서 제·개정 주요내용

기준서	제·개정 주요내용
제1109호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 기준서를 대체하여 제정 - 주관적인 '보유 목적'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하던 방법에서, 객관적인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분류하도록 변경 - 기존 금융자산의 4가지 분류를 3가지로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개정(3):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 사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발생손실모형)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방법(기대손용손실모형)으로 변경 -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완화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전면 대체하여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제1018호(수익) 해석서: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 이전) - 기업이 계약에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함에 따라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함이 핵심원칙 -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여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계약식별 ② 수행의무 식별 ③ 거래가격 산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 주요변동 내용: 현재가치고려, 반품회계처리, 라이선스 수익, 총액과 순액 인식, 진행 기준 적용 판단기준, 보증 관련 회계처리 등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 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함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최초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면제 규정에 대한 기한이 경과하였고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여, 단기 면제 규정과 그 규정에 관련된 시행일 문단을 삭제함

기준서	제·개정 주요내용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 기업에 대한 투자	-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이 관계 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 하는 경우,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분법'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인식할 때에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 급이나 선수취로 인해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날의 환율을 적용(선 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환율을 적용)
제1040호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정의 충족 여부가 달라지고, 증거로 뒷받침되는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 만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에서) 계정 대체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용도 변경 상황을 예시로 보일 수 있도록 개정 - 부동산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제1104호 보험계약	-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① 기업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경우 K-IFRS 제1109호의 적용 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 ② K-IFRS 제1109호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회계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발행자의 적절한 금융자산의 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제·개정 기준서 영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사원총회 등의 승인 또는 의결로 확정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된다. 이에 따라 제·개정된 기준서를 반영하는 결산서상 개정된 계정과목과 주식공시사항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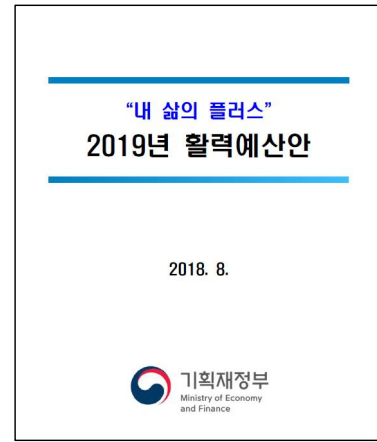
2018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K-IFRS 제·개정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관의 계정과 목 분류 등이 변경되고, 대손상각(손상차손)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익인식 기준 이 변경되어 기관의 손익 변동성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주식 작성이 필요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 관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서	결산에 미치는 영향
제1109호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회계기준서 제1109호 관련 도입으로 기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손실모형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금액 증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자산의 증가로 인한 당기손익 변동성 확대 등 -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 등의 제정사항에 대하여 결산서상 계정과목과 주석 등에 반영이 필요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회계기준서 제1115호 관련 도입으로 기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사업·수익구조 특수성에 따른 손익의 변동 가능성 증가 등 수익인식 등의 제정사항에 대하여 결산서상 주석 등에 반영이 필요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제1040호 투자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회계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지침 제공 성격의 개정이므로 기관 결산서상 개정사항은 없으나, 주석 중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에 개정 효과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됨
제2122호 외화거래와 선지급·선수취대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최초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면제 규정에 대한 기한이 경과하여 삭제된 내용으로 현행 K-IFRS를 적용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1104호 보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의 한시적 면제 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결산서상 개정사항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2019년 예산안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가. 2019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2018년 8월 28일(화),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2019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①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 ② 일자리, 혁신성장,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 ③ 소득재분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대폭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1) 재정총량

2019년 총수입은 반도체·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7.6% 증가가 전망되며, 총지출은 2009년(금융위기)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470.5조원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Delta 0.2\%p$)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며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Delta 0.1\%p$)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조원, %)

구 분	2018년 ¹⁾ (A)	2019년 ¹⁾ (B)	증감(B-A)	
				%
◇ 총수입	447.2	481.3	34.1	7.6
- 국세	268.1	299.3	31.2	11.6
◇ 총지출	428.8	470.5	41.7	9.7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28.5$ ($\Delta 1.6$)	$\Delta 33.4$ ($\Delta 1.8$)	$\Delta 4.9$ ($\Delta 0.2\%p$)	$\Delta 13.7$
◇ 국가채무 (GDP 대비 %)	708.2 (39.5)	741.0 (39.4)	32.8 ($\Delta 0.1\%p$)	4.6

주: 1) 2018년은 본예산, 2019년은 예산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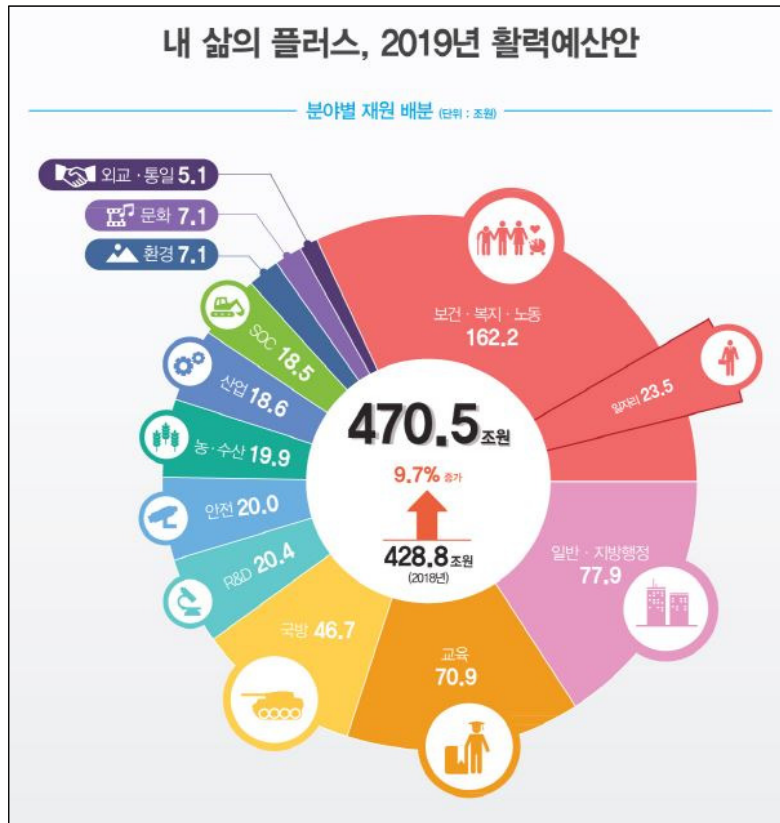
2) 분야별 자원배분

기획재정부는 늘어나는 예산을 주로 청년일자리 대책 지속 지원 등 일자리 창출, R&D 예산 확대 등을 통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의 제고, 기초·장애연금 인상 등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분야별 자원배분은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

구 분	2018년 ¹⁾ (A)	2019년 ¹⁾ (B)	증감(B-A)	
				%
◆ 총지출	428.8	470.5	41.7	9.7
1. 보건·복지·노동	144.6	162.2	17.6	12.1
2. 교 육	64.2	70.9	6.7	10.5
3. 문화·체육·관광	6.5	7.1	0.6	10.1
4. 환 경	6.9	7.1	0.2	3.6
5. R&D	19.7	20.4	0.7	3.7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6	2.3	14.3
7. SOC	19.0	18.5	△0.5	△2.3
8. 농림·수산·식품	19.7	19.9	0.2	1.1
9. 국 방	43.2	46.7	3.5	8.2
10. 외교·통일	4.7	5.1	0.4	7.5
11. 공공질서·안전	19.1	20.0	0.9	4.9
12. 일반·지방행정	69.0	77.9	8.9	12.9

주: 1) 2018년은 본예산, 2019년은 예산안 기준



2019년 분야별 재원배분을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보건·복지·노동,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 등 SOC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18년 8월 28일(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입은 법인 영업실적 개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양호한 흐름이 전망된다. 다만, 2017~2021년 계획(연평균 6.8%)보다 감소한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2019년까지는 세수호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2020년 이후 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이 있다. 재정지출은 적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재정을 당초계획(연평균 5.8%) 대비 확장, 연평균 7.3% 증가하는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재정수지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

해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

구분	2018년 ¹⁾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재정수입	447.2	481.3	504.1	525.4	547.8
재정지출	428.8	470.5	504.6	535.9	567.6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18.3 (1.0)	10.8 (0.6)	△0.5 (△0.03)	△10.5 (△0.5)	△19.8 (△0.9)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28.5 (△1.6)	△33.4 (△1.8)	△44.5 (△2.3)	△54.2 (△2.6)	△63.0 (△2.9)
국가채무 (GDP 대비, %)	708.2 (39.5)	741.0 (39.4)	790.8 (40.2)	843.0 (40.9)	897.8 (41.6)

주: 1) 2018년은 본예산 기준

다.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18년 8월 31일(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 대상인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LH·한전·도로공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 인프라가 확충되어 2018~2022년간 자산은 115.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156%로 전망하였다.

(단위: 조원, %)

구분		2017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2022년 중장기	자산	754.3	769.4	792.6	821.6	851.7	885.1
	부채	472.3	480.8	491.8	506.2	520.6	539.0
	부채비율	167	167	163	160	157	156

4 OECD 회원국의 재정수지 및 부채 동향

OECD는 2018년 5월 『OECD Economic Outlook』 NO 103을 통해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총금융부채 정보를 공개하였다. OECD 주요 회원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Net lending/borrowing) 및 총금융부채(Gross financial liabilities)의 비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GDP 대비, %)

구 분	일반정부 재정수지 (Net lending/borrowing)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Gross financial liabilities)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호주	△1.1	△1.5	△0.5	40.6	42.2	43.0
오스트리아	△1.0	△1.6	△0.7	107.5	108.3	101.0
벨기에	△2.5	△2.5	△1.0	127.5	128.4	121.9
캐나다	△0.1	△1.1	△1.0	97.5	97.8	93.8
체코	△0.6	0.7	1.6	52.0	47.7	43.9
덴마크	△1.5	△0.4	1.0	53.8	52.4	50.3
에스토니아	0.1	△0.3	△0.3	13.0	13.1	12.6
핀란드	△2.8	△1.8	△0.6	74.5	75.4	73.9
프랑스	△3.6	△3.4	△2.6	120.3	123.5	121.9
독일	0.8	1.0	1.3	79.2	76.5	71.7
그리스	△5.7	0.6	0.8	185.8	190.4	185.1
헝가리	△1.9	△1.7	△2.0	97.6	97.5	91.8
아이슬란드	△0.8	12.6	1.5	72.5	66.4	64.5
아일랜드	△1.9	△0.5	△0.3	89.8	84.5	82.2
이스라엘	△2.1	△2.1	△2.1	64.1	62.3	60.8
이탈리아	△2.6	△2.5	△2.3	159.1	157.5	154.6
일본	△3.6	△3.4	△3.5	216.6	222.4	224.1
한국	1.3	2.4	2.8	45.7	45.1	44.5
라트비아	△1.4	0.1	△0.5	46.6	50.5	48.4

구 분	일반정부 재정수지 (Net lending/borrowing)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Gross financial liabilities)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룩셈부르크	1.4	1.6	1.5	28.8	27.4	29.0
네덜란드	△2.1	0.4	1.1	77.5	75.3	68.7
뉴질랜드	0.2	1.2	0.9	40.2	37.7	36.0
노르웨이	6.1	4.0	4.4	38.9	42.8	42.4
폴란드	△2.6	△2.3	△1.7	69.5	72.1	67.8
포르투갈	△4.4	△2.0	△3.0	150.7	147.6	148.1
슬로바키아	△2.7	△2.2	△1.0	60.0	60.0	58.4
슬로베니아	△2.9	△1.9	0.0	102.8	97.6	88.6
스페인	△5.3	△4.5	△3.1	116.4	116.6	114.8
스웨덴	0.2	1.2	1.3	54.1	52.7	50.3
스위스	0.6	0.3	1.1	43.3	42.6	41.5
영국	△4.3	△3.3	△1.8	112.3	121.1	118.0
미국	△4.3	△5.0	△3.6	105.1	107.0	105.4
OECD-총액	△3.0	△2.9	△2.0	111.5	113.3	111.5

출처: stats.oecd.org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수지는 2017년 GDP 대비 2.8%로 전기(2.4%) 대비 0.4%p 상승하였으며, OECD 전체평균 △2.0%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총금융부채는 2017년 GDP 대비 44.5%로 OECD 전체평균 111.5%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04

공익법인회계 동향

1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연구용역 최종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수탁과제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2018.3.23. ~ 7.22., 4개월) 과제를 수행하였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는 공익법인 회계담당자들의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자 회계기준의 기본원리와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또한 다양한 회계처리 사례를 마련하여 회계기준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실효성 있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마련을 위해 연구기간 동안 공익법인 관련 회계전문가, 학계,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을 운영하였다. 연구자문단은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에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을 논의하였으며, 논의된 결과는 실무지침서에 반영되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차 자문회의 (7.12.),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

또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포럼을 통해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무 활용에 적합한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후에는 공익법인 회계전문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 운영) 위원을 통해 지침서에 담긴 회계처리와 관련 예시가 회계원칙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연구보고서의 완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의 목차(안)는 다음과 같으며, 기획재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목차(안)〉

구 분	내 용
I.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재무보고의 목적, 통합재무제표 작성범위, 발생주의·복식부기의 특수성 반영 등
II.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범위	기준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사례
III. 재무제표 개요 및 작성기준	1. 재무제표 작성원칙
	2. 재무상태표 해설 및 실무사례
	3. 운영성과표 해설 및 실무사례
	4. 주석 해설 및 실무사례
	5. 기타사항
부록	현금주의·단식부기와 발생주의·복식부기의 비교 * 주요 거래 유형별(유형자산 취득, 감가상각, 대손상각, 퇴직급여 등) 회계처리 비교

본 연구결과를 통해 마련될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는 공익법인 실무담당자들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다양한 회계처리 적용 사례를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원활한 적용이 가능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설로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및 재무제표 통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교육 발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9월 6일에 아모레퍼시픽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열린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교육 진행에 참여하였다. 본 교육은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이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를 소개하고, 재정통계팀 박윤진 팀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어 삼일회계법인 변영선 센터장이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교육(9.6), 아모레퍼시픽 본사 2층 아모레홀〉

05

센터 동향

1 국가회계 자문위원회 신규(재) 위촉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 9월 3일, 국가회계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원 3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현 위원 6명을 연임하였다. 국가회계 자문위원회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국가회계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내의 자문기구이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은 시립대학교 심태섭 교수, 계명대학교 윤영진 교수 및 홍익대학교 배원기 교수이고, 연임된 위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중열 교수,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 강원대학교 이아영 교수, 경희대학교 최연식 교수,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 부회장, 기획재정부 박성동 국고국장이다.

이로써 국가회계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기획재정부의 고위공직자로 정책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정부위원 1명, 국내외 국가재정 및 공공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8명과 현 임기 내에 있는 해외 자문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규정에 따라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되고, 자문위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9월 3일 신규 위촉 및 재위촉된 국가회계 자문위원들은 2018년 9월 2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2년 동안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관련 주요 이슈, 국가회계제도에 관한 발전방안 등의 국가회계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안 전반에 대해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 위탁과제 「추정재무제표 마련 및 시스템 구축방안」 중간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 7월 26일 중회의실에서 지난 4월 위탁과제 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위탁과제 「예산에 기초한 추정재무제표 마련을 위한 예측시스템 구축 방안」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책임자인 조형태 교수와 발주처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정도진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참석하였다.

조형태 교수는 추정재무제표와 연계되어 있는 발생주의 예산회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와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추정재무제표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추정재무제표 작성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사례 및 개략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은 “재정건전성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추정재무제표를 예산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달라”고 했고 국가회계팀의 한소영 회계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외와 공공부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인 요약과 시사점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제시된 연구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정리하여 조형태 교수에게 전달하였다.

주요국의 경우 발생주의 예·결산 제도의 효율성과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중기사업계획 및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본 위탁과제를 통해 국가예산에 대한 추정과 예측 가능성을 검토하여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위탁과제 중간보고회(7.26.),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중회의실〉

3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5차 월례회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7월 12일, 제5차 「2018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정관리 및 재정통계 분과'로 소속되어 총 4차례 월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재정관리 및 재정통계 분과'의 연구진은 강태혁 교수(한경대), 김이배 교수(덕성여대), 박성환 교수(한밭대), 남혜정 교수(동국대), 이아영 교수(강원대), 배득중 교수(연세대), 임동완 교수(단국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서울 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5차 월례회의에서는 덕성여대 김이배 교수가 「보건·복지 분야 세출예산의 성과 지향적 분류체계」라는 연구 주제를 발표하였다. 김이배 교수는 첫째, 80대 핵심사업과 중점사업의 일치·연계성 둘째, 중점사업 평가 셋째, 보건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수 조정, 마지막으로 인건비를 프로그램별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9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8년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나온 코멘트를 반영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를 출판할 계획이다.

4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3~9차)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2018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지난 7월부터 9월에 걸쳐 총 7차례(3~9차)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조기에 교육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국가회계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기금·회계)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국가회계전문교육 개최 일정〉

차 수	지 역	일 정	장 소	강 사
제3차	광주	7. 4.(수)~7. 6.(금)	김대중컨벤션센터	- 국가회계이론 과정 김상노, 이재혁, 박성동, 허웅
제4차	부산	7. 10.(화)~7. 12.(목)	부산컨벤션센터(BEXCO)	
제5차	대전	7. 18.(수)~7. 20.(금)	대전컨벤션센터	
제6차	서울	8. 22.(수)~8. 23.(목)	서울무역전시장(SETEC)	- 국가회계실무 과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
제7차	제주	8. 29.(수)~8. 31.(금)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8차	강릉	9. 5.(수)~9. 7.(금)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제9차	서울	9. 12.(수)~9. 14.(금)	서울무역전시장(SETEC)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과정’과 ‘국가회계실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대상자가 자신의 수준과 목표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먼저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국가회계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과 국가회계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국가회계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회계를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였다.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2일간 실시되었으며, 교육과목은 1일차에 ①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기초 원리 ②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제도(강사: 김상노, 이재혁) ③ 국가회계제도의 이해(강사: 박성동), 2일차에는 ①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②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③ 종합사례 연습(강사: 허웅)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또한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생들이 본 과정을 통해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을 습득하여 기중 회계처리 시 오류를 줄이고,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1일간 실시되었으며, 교육과목은 ①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 사례 및 해결 방안(강사: 오가영(수입·지출), 임종권(국유·물품)) ② 국가재무제표 들여다보기 ③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이상 강사: 최금주, 현지용)를 주제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제6차 서울 교육에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IPSAS)과 국가회계'라는 주제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과 관련한 최근 이슈와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여 수강생들이 IPSAS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3차 광주 교육〉



〈제9차 서울 교육〉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내 유일의 국가회계 분야의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콘텐츠 제공과 체계적·안정적인 교육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2010~2017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 실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생들은 대체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교육운영과 교육콘텐츠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1~9차)에서 전체 만족도는 4.64점(전년도 4.57), 강의만족도는 4.58점(전년도 4.55), 교육환경만족도는 4.74점(전년도 4.62)으로 전 부문에서 전년도 대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제1차 서울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제12차 세종지역 교육까지 7개월(6~11월)에 걸쳐 8개 도시(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제주, 강릉, 세종)에서 실시 중이며,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edu.kip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2018년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 회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2018년도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 회의를 진행하였다.



〈디브레인시스템 8월 개선과제 회의(9.1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의실〉

2018년에는 부처 결산담당자 및 결산지원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총 61개의 디브레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34개 과제를 올해 개선할 예정이다(27개 과제는 2019년으로 이월). 개선과제는 디브레인 메뉴에 따라 ‘회계결산’, ‘국유재산/물품’, ‘지출’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지며, 이 중 ‘회계결산’이 58개로 개선과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스템 개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개선 내용 점검, 회의를 통한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 순서로 진행이 된다. 8월까지 올해 개선사항 34개 중 17개가 개선 완료되었으며, 11월까지 17개를 추가 완료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으로 향후 디브레인 사용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업무협약 체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수행을 위해 한국도로공사(7월 5일), 한국가스공사(7월 6일) 및 안전보건공단(7월 17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대표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과, 한국도로공사를 대표하여 고채석 기획본부장, 한국가스공사를 대표하여 임창수 경영협력처장, 안전보건공단을 대표하여 김도원 경영지원실장이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모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센터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업무협약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사회적 가치, 경영위기)을 포괄하는 통합결산보고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업무협약체결(7.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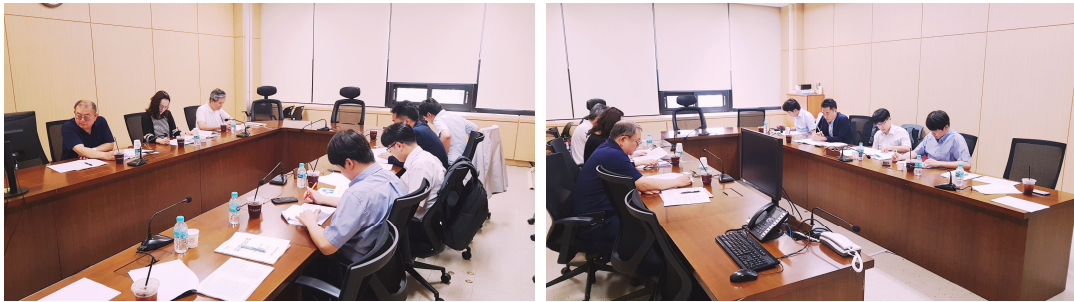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업무협약체결(7.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의실〉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업무협약체결(7.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7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중간보고심의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연구개발적립금과제(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결산보고서 개발) 중간보고심의회를 8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하였다. 중간보고심의회는 연구진의 연구진행 현황 보고에 이어 외부 심의위원인 권혁대 교수(목원대),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이아영 교수(강원대)의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개발적립금과제는 일반국민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업무협약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하여 기관별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중간보고심의회(8.30.),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

〈 중간보고심의회 위원진 토론 내용 요약〉

- [전중열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정의를 나열함과 동시에,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의 인식·측정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적 가치 정의를 역으로 제시하여 논리적 연계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함. 또한, 통합결산보고서의 형태로 보고되는 것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와 조기경보 간의 관련성을 충분히 아우르는 본문 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권혁대 교수, 목원대] 사회적 성과의 측정·공시 방법 간의 차이 제시를 통해, 논리적 연계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함의를 도출해낼 것을 강조함. 또한,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분석 시, 분석 대상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시행하지 않은 기관도 포함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의 예측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 [이아영 교수, 강원대] 보고서상의 용어 및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가치'·'사회적 책임' 용어 구분과 '공공기관이 실현하는(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본문 제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또한, 논리적 연계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설문 조사 문항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본 연구가 기존 민간부문의 논의와 구분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연구로서의 차별성을 제시할 것을 강조함
- [정도진 소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공공기관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존재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기경보를 본 연구에서 함께 제시하였고, 이를 본문에서 적절하게 반영해서 논리적 연계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함. 또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논의 시, 작동 방식·보고 방식 등의 구체적인 도입방법을 제시할 것을 강조함

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공동주최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 세미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육군이 공동주최한 ‘2018년 조세재정연-육군 공동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 세미나’에서 ‘육군의 합리적 예산 수립을 위한 재무정보 개발: 상용차량(버스) 획득 및 유지 분야’ 및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 활용방안’ 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함

가. 개요

- 1) 일시: 2018.9.14(금) 14:00~16:30
- 2) 장소: 경기도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 1층 포트리스홀
- 3) 주최: 육군 기획관리참모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4) 발표: (주제1) 육군의 합리적 예산 수립을 위한 재무정보 개발: 상용차량(버스) 획득 및 유지 분야
(주제2)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 활용방안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 육군의 합리적 예산 수립을 위한 재무정보 개발: 상용차량(버스) 획득 및 유지 분야
(이남주, 국가회계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8년 9월 14일 밀리토피아 호텔 포트리스홀에서 개최된 2018년 조세재정연-육군 공동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 세미나에서 이남주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은 「육군의 합리적 예산 수립을 위한 재무정보 개발: 상용차량(버스) 획득 및 유지 분야」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남주 팀장은 “최근 육군 특정 사단의 중형버스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용차량 버스의 장비유지 및 획득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상용차량 버스의 주기성 교환품목 정비 누락 금액을 추정하고 주행거리별 편성 기준액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비 획득 예산 부족액을 산

정하여 문제점을 재인식하도록 하고 도태 결정을 목적으로 불용결정산식이 실무상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 주된 발표 내용 〉

- (장비유지) - 상용차량 버스의 주기성 교환품목 정비 누락 금액 추정
- (장비유지) - 주행거리별 편성 기준액 마련 방안 제시
- (획득) - 예산부족액 산정 및 불용결정산식 실무적용의 적정성 검토

주제발표에 이어 조성표 교수(한국회계학회회장, 경북대)가 사회를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조형태 교수(홍익대), 이혁수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임경국 중령(육군)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본 연구는 재무정보 활용에 관하여 육군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한 최초의 실무적인 연구로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상용차량에 비해 예산 사용액이 보다 크고 중요한 장비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며, 분석 시 현금주의 재무정보 이외에 복식부기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상용차량 버스에 대한 분석은 연구의 시발점에 불과하며, 향후 육군의 모든 장비에 연구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군 장비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형태] 국가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더라도 국방부의 수선유지비는 전비품의 노후화를 대체할 정도로 충분히 투자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차량유지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무회계 정보로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정비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지표(KPI)의 개발, 차량의 사용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류비 등을 대체적인 정보로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재무정보를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산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하나, 국방부의 전기수정유류 및 기타 비용은 타 중앙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결산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다면 차년도 예산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타 부처에 예산 증액을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결산정보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혁수] 누적 주행거리별로 차량유지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누적 주행거리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연구 방향에 동의한다. 예산편성 기준이 단순화될수록 소요예산 판단은 용이해지나 현

실적인 소요와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연구에서 제시한 주행거리별 편성 기준액의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편성과정보다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기왕, 기존 편성기준의 단순성을 벗어나 보다 실소요를 추정하는 체계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지역적/부대적 차량운용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형, 중형, 소형 차량의 각 차량 그룹 내에서도 차종 간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향후 상용차량의 유지비 편성 기준은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예산소요가 자동으로 판단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임경국] 주제와 연구방향을 고려해 볼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재무적 요소를 적용한 차별성은 무엇이며, 재무적 요소를 적용한 차별성이 있다면 그 차별성은 국가회계 도입에 따른 영향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또한, 군 상용차량이 운용되는 시군구 지역을 고려한 '가혹조건'을 교체주기 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최근 21사단 중형버스 등의 사고와 연관짓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 활용방안(정재희, 중령, 육군)

두 번째 주제로 정재희 중령(육군)은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재희 중령은 “사용자의 편의성이 갖추어져야 유용한 시스템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의 활용을 위하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사용자 권한의 부여, 시스템 고도화, 예산편성 판단자료 제공, 예산운영 현황의 실시간 조회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성표 교수(한국회계학회, 경북대)가 사회를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조형태 교수(홍익대), 임경국 중령(육군)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초급 간부, 업무담당자보다 상위 최종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상의 자료를 카테고리화하여 정책결정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의 전반적인 활용도 조사를 위하여 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의 12개 분야 중 회계 이외의 다른 사용 분야에 대해서도 설문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조형태]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관심과 사용자의 편의성이 중요하며, 사용자

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일부 상급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취합하여 피드백이 되도록 별도의 TFT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시스템상 문제 발생 시 이를 긴급히 복구할 수 있는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임경국]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각 개별 시스템을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전기오류수정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회계에서 사용되는 지표가 아닌 국가 회계 실정에 맞는 지표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018년 조세재정연-육군 공동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 세미나(9.14.), 경기도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 1층 포트리스홀〉

07

2018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출장 후기

이번 출장의 목적은 IPSASB(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IPSAS(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의 제·개정 과정에 우리나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제공공부문의회계전문가와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국가회계기준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가. 출장개요

- 출장기간: 2018.6.17.(일) ~ 2018.6.24.(일)
- 출장지: 캐나다공인회계사협회(CICA), 캐나다 토론토
- 출장자: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임정혁·진태호 전문연구원
- 안 건: 금융상품, 사회보장급여, 수익, 비교환비용, 공공부문 측정 등

〈세부 일정〉

일자	주제	내용	시간
6/19	행사 소개 및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및 참석자 확인 • 과거 회의결과 및 활동현황 발표 • EPSAS 업데이트 • IASB 업무계획 요약 	09:00 - 09:30
	커뮤니케이션 활동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uan Zhang(중국 위원) 구두 보고 	09:30 - 10:00
	조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C(공익위원회) 구두 보고 • CAG(자문위원회) 구두 보고 	10:00 - 10:30
	업무계획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계획 관련 이슈 요약 	10:30 - 10:40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승인 	11:00 - 12:30
	사회보장급여, 비교환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 검토(적용범위·용어 정의 관련) 	13:30 - 15:10
	사회보장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 검토 	15:30 - 17:00
6/20	사회보장급여(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 검토 	09:00 - 12:30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논의(IFRS 15의 접근법) 	13:30 - 15:10
	수익 및 비교환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논의(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 	15:30 - 17:00

일자	주제	내용	시간
6/21	수익 및 비교환비용	• 이슈 논의(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	09:00 - 10:40
	수익	• 이슈 논의(IPSAS 23 개정)	11:00 - 11:40
	비교환비용	• 이슈 논의(집합적 서비스)	11:40 - 12:30
	공공부문 측정	• 이슈 논의	13:30 - 17:00
6/22	금융상품	• IPSAS 승인	09:00 - 10:00
	공공부문 측정(계속)	• 이슈 논의	10:00 - 12:30
	전략 및 업무계획	• 라운드테이블 결과 등 보고	13:30 - 14:15
	업무계획 보고	• 업무계획 관련 이슈 요약	14:15 - 14:40
	폐회사	• 회의결과 정리	15:00 - 16:00

나. 주요내용 요약

다음은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주요 안건의 내용과 논의결과,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금융상품’ 프로젝트는 금융상품의 분류, 인식, 측정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서인 ‘IPSAS 41,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IPSAS 2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IPSAS 29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는데, 2014년 7월에 IAS 39가 ‘IFRS 9, 금융상품’으로 대체됨에 따라 IFRS와의 정합성(convergence)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금융상품 프로젝트를 통해 IFRS 9 기반의 IPSAS 41을 개발하여 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금융상품 공개초안(ED 62)’에서 제기되었던 기타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결정하고, ‘IPSAS 41, 금융상품’의 승인을 최종 의결하였다.

‘IPSAS 41, 금융상품’은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2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국가회계에서 금융상품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은 금융상품의 형태를 기준으로 그 유형과 각각의 측정기준을 규정하는 반면, 'IPSAS 41, 금융상품'은 'IFRS 9, 금융상품'과 유사하게 관리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바탕으로 정한 금융상품의 측정속성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분류하고 측정한다.

〈 국가회계기준과 IPSAS의 금융상품 규정 비교〉

구분	국가회계기준		IPSAS 41	
	분류	후속측정	분류	후속측정
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취득원가	상각후원가 항목	상각후원가
	금융상품	취득원가	순자산-공정가치 항목	공정가치 (차액은 순자산에 반영)
	유가증권	취득원가(투자목적은 공정가액)		
	미수채권, 대여금	취득원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	공정가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반영)
	기타의 금융자산	취득원가(파생상품은 공정가액)		
금융부채	국채, 공채	발행가액 ± 할인(할증)차금 상각액	상각후원가 항목	상각후원가
	차입금	만기상환가액	순자산-공정가치 항목	공정가치 (차액은 순자산에 반영)
	미지급금	만기상환가액		
	기타의 금융부채	만기상환가액(파생상품은 공정가액)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	공정가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반영)

국가회계기준의 경우 정부가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재무제표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형별로 측정기준이 상이하여 금액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IPSAS 41의 경우 금융상품을 현금흐름 등 금융상품의 실질적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복합적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예: 신종자본증권)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분류기준과 측정기준을 연계하여 이해하기 용이하다.

2) 금융상품의 손상 회계처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 금융자산의 손상이 발생한 뒤에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사후적 모형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IPSAS 41, 금융상품'은 기대되는 손상 금액(기대신용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사전적 모형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국가회계기준 등은 손상 회계처리를 대손 회계처리와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는데, IPSAS 41은 손상과 대손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IPSAS 41의 손상 회계처리는 기대신용손실 개념에 따르므로 손상과 대손을 포괄할 수 있어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회계처리가 국가회계기준에 비해 보다 단순하고 일관적이다.

□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s)

사회보장급여는 공공부문 실체에 매우 중요한 지출 항목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행 IPSAS 기준서들이 이러한 사회보장급여로 발생하는 비용과 부채와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사회보장제도의 재무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재무제표에서 얻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IPSASB의 '사회보장급여' 프로젝트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는 2017년 10월에 발표한 '사회보장급여 공개초안(ED 63)'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ED 63은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인식·측정·공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ED 63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주로 ED 63의 적용범위, 사회보장급여의 정의, 의무발생사건접근법(obligating event approach)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IPSASB는 논의결과 ED 63의 적용범위는 유지하는 대신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상 '현금의 이전 (transfer of cash)'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적용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의결하였다. 또한 ED 63의 의무발생사건접근법 회계처리는 기준서 우선 발표 후에 사후이행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를 통해 다시 판단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IPSASB는 2018년 12월 정례회의에서 ED 63을 기준서로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D 63은 사회보장급여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가회계기준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가회계기준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회계기준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의 유형별로 회계처리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회계처리지침들은 통일된 사회보장급여 정의를 제시하지 않으며, 사회보장급여 관련 부채의 인식시기를 사업 유형별(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로 상이하게 규정한다.

이에 비해, IPSAS는 새로운 사회보장급여 기준서(ED 63)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회계처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단일의 사회보장급여 정의를 명확히 제시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부채의 인식시기를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과 IPSAS의 사회보장급여 규정 비교〉

구분	국가회계기준	IPSAS
관련 회계기준	「연금 회계처리지침」(국민연금) 「보험 회계처리지침」(고용보험, 산재보험)	‘공개초안 63, 사회보장급여’
적용범위	각 회계처리지침의 적용범위에 따름	5. 이 기준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 (a) ‘IPSAS 41,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있는 금융상품 (b) ‘IPSAS 39, 종업원급여’의 적용범위에 있는 종업원급여 (c) 보험계약을 다루는 적절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자국 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있는 보험계약
사회보장급여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원화된 정의 없음 • 「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제정근거17 국민연금은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통칭 사회보험 또는 사회연금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 「보험 회계처리지침」 문단3.(2) “사회보험사업”이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업, 업무상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민의 소득 등을 보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초안 63’, 문단6에서 하나의 정의 제시 • 사회보장급여는 다음의 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현금 이전을 말함 (a)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개인 또는 가계에 제공되는 것으로 (b) 사회적 위험의 효과를 완화시키고 (c) 사회적 요구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

구분	국가회계기준	IPSAS
사회보장급여 부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접근법 적용 불가 • 국민연금: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연금지급액 및 환급금을 '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하는 준비금은 '기타부채'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접근법 선택 적용 가능 • 의무발생사건접근법 적용 시 생존 포함 차기의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채 발생(부채 금액은 수급조건 충족한 차기급여 지급액으로 측정됨)

만약, 국가회계에서도 사회보장급여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을 통합한 단일 기준서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사회보장급여의 구체적인 정의와 적용범위, 통일된 회계처리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익(Revenue), 비교환비용(Non-exchange Expenses)

IPSASB는 '수익'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유형의 수익거래를 포괄하는 기준서를 개발하고, '비교환 비용'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환비용의 인식과 측정을 위한 기준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현행 IPSAS가 가진 실무 적용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다.

IPSASB는 IFRS 15의 수행의무 개념을 공공부문에 접목시킨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public sector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의 수익거래와 비용거래에 모두 도입하여 '수익' 프로젝트와 '비교환비용' 프로젝트를 연관시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IFRS 15'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를 공공부문에 맞게 변경하거나 정의를 수정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수익거래에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보조·출연과 같은 비용거래에서 약정 체결 시점에 자원제공자에게 현재 의무에 상응하는 자산(right-to-service)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밖에 수증용역(Services In-kind)의 회계처리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회의 결과 IPSASB는 계약(Contract), 고객(Customer) 등 일부 용어의 교체 또는 수정이 필요하며,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의 5단계 중 1단계(계약 식별)와 2단계(수행의무 식별)에서 공공부문 특유의 이슈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보조·출연과 같은 비교환비용 거래에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을 적용할 때 자원 제공자에게 자산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이슈이므로 향후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수증용역 회계처리의 경우 ‘IPSAS 23, 비교환거래로 발생한 수익’의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것을 의결하면서 공시정보 개선을 위한 추가 연구를 Staff에게 지시하였다.

IPSASB의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출연금 회계처리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특정 기금으로 재원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출연금을 지급한 경우 일반회계는 출연금을 지급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기금은 이를 고지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에 비해 IPSASB의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은 수행의무가 부과된 출연금이므로 일반회계와 기금은 해당 수행의무가 이행된 때(즉, 재원사용 목적을 달성한 때) 각각 비용과 수익을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각각의 회계처리를 단순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국가회계기준과 IPSAS의 출연금 회계처리 비교〉

구분	국가회계기준		IPSAS의 PSPOA	
	일반회계 (자원제공자)	기금 (자원수령자)	일반회계 (자원제공자)	기금 (자원수령자)
약정체결 시	회계처리 없음	회계처리 없음	자산 / 부채	회계처리 없음
자원제공 시	비용 / 현금	현금 / 비교환수익 ¹⁾	부채 / 현금	현금 / 부채
수행의무이행 시	회계처리 없음	회계처리 없음	비용 / 자산	부채 / 수익

주: 1) 실무적으로 출연금의 고지와 현금의 수취 시점이 거의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였음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경우 기금이 출연금 재원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연금을 수취(고지)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므로 현금주의 정보 이외에 출연금과 관련된 재무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IPSASB의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출연금의 목적(수행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므로 기금의 수익 정보와 기금의 성과 정보가 연계될 수 있어 보다 유용한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공부문 측정(Public Sector Measur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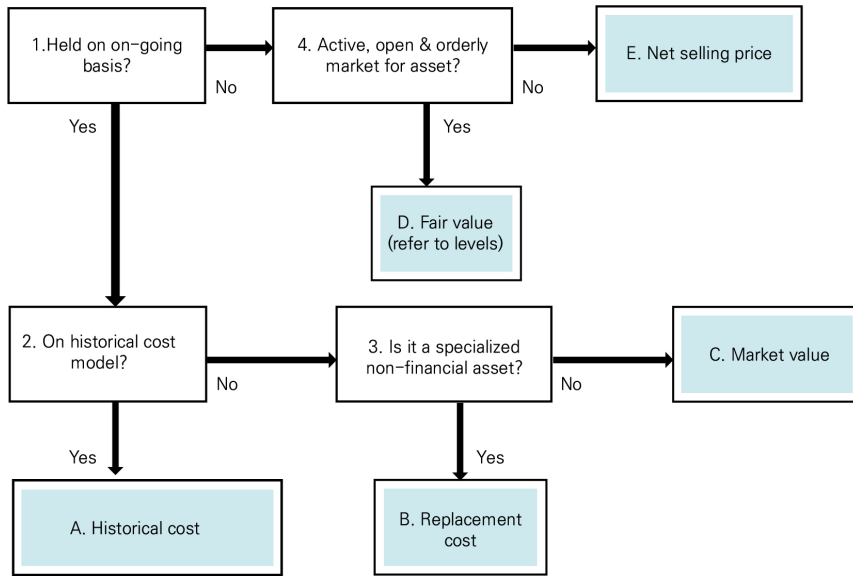
IPSASB는 2014년 10월에 발표한 IPSAS 개념체계와 현행 IPSAS의 측정 규정들, 'IFRS 13, 공정가치 측정'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공부문 측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IPSASB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현행 IPSAS의 자산·부채의 측정 관련 규정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단일 IPSAS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와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자문보고서는 측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공개초안은 새로운 IPSAS의 규정(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주로 비금융자산의 후속측정을 위한 흐름도(안)에 대한 논의와 공개초안에 인용된 'IFRS 13의 공정가치 규정'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개발 단계에 있는 이 흐름도(안)는 IPSAS 개념체계를 따를 경우 비금융자산을 후속 측정할 때 어떤 측정기준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도식화한 것이다. IPSASB는 이 흐름도(안)를 현행의 'IPSAS 12, 재고자산', 'IPSAS 17, 유형자산', 'IPSAS 31, 무형자산', 'IPSAS 27, 생물자산'에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그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IPSASB는 또한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개념과 측정방법들이 공공부문에도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IPSASB는 회의 결과 공공부문 측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자문보고서 및 공개초안의 문서 구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비금융자산의 후속측정기준 흐름도(안)〉

DARFT FLOW CHART-SUBSEQUENT MEASUREMENT



공공부문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공공부문 특유의 측정기준을 파악하고 자산·부채 측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IPSAS의 움직임은 국가회계기준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 성격을 갖고 있어 측정기준 사이의 관계나 측정기준의 선택 기준에 관한 개념적 근거는 담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IPSAS는 개념체계에서 자산·부채의 측정기준 유형과 측정기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개별 IPSAS의 결론도출 근거를 통해 특정 측정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회계기준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PSAS 개념체계와 개발 중인 측정기준서를 검토하고 이를 국가회계 규정과 비교함으로써 자산·부채별 측정기준에 대한 개념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문단제정근거 또는 실무 해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회계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과 재평가 대상인 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 외에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IPSAS의 경우 'IFRS

13, 공정가치 측정' 처럼 개발 중인 측정기준서에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정가치 산정기법을 상세하게 답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후 IPSASB의 공공부문 측정 프로젝트 진행결과를 참고하여 공공부문 특성을 고려한 공정가치 산정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PSASB 6월 정례회의(6.17 ~ 6.24), 캐나다 토론토〉

08

공지사항

1 『국가회계편람』 발간 공지

『국가회계편람』 개정판이 2018년 7월 발간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4년 12월 국가회계예규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회계예규의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국가회계편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국가회계편람은 국가재무제표 작성 기준인 국가회계 관련 법령뿐 아니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가회계예규와 적용사례, 실무해설 등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2017년도 ‘국가회계제도심의회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개정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 등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회계편람』은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년도 재무정보 업데이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알기 쉬운 국가회계』의 주요 내용인 국가 재무정보 관련 내용을 2017년도 최신 재무정보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2016년도에 개최한 ‘국가회계제도 도입 5주년 세미나’를 기념하여 최초 발간한 이후 세부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발간되고 있으며, 본서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다지기, 국가회계제도 이해하기, 국가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주요 계정과목 살펴



보기, 기타 특수한 회계처리 등 다섯 개의 파트로 구분하여 국가회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별첨에서는 국가 재무제표와 국가회계실제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국가회계 기초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신 국가 재무정보를 반영한 책자는 온라인 배포 예정이며, 10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3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신청 안내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지난 6월 서울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실시 중이며, 현재는 10~11월까지의 교육과정(10~12차)을 신청·접수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원하는 분은 국가회계교육 포털(<http://edu.kipf.re.kr>)에 접속하여 수강 희망 일정과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동일 과정에 대해 중복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일정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 신청건을 먼저 취소한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내 ‘나의 학습 조회’에서는 교육신청조회, 신청취소, 신청정보변경, 수수료증 출력 등을 할 수 있다.

※ 관련문의: 결산교육팀 전승진 행정원(044-414-2375)

〈교육 일정〉

차수	지역	교육과정	교육일정	기간	인원	장소	비고
10차	세종	국가회계이론	10. 10.(수) ~ 10. 11.(목)	2일	1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가회계실무	10. 12.(금)	1일	100		
6차 보강 ¹⁾	서울	국가회계실무	10. 19.(금)	1일	100	서울무역전시장	국유·물품
11차	세종	재무결산실무	11. 8.(목) ~ 11. 9.(금)	2일	1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2차	서울	재무결산실무	11. 15.(목) ~ 11. 16.(금)	2일	100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주: 1) 6차(서울) 교육 취소분에 대한 재실시(사유: 태풍 복상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

4 뉴스레터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를 통해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49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5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편 집**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전체 총괄)

이남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현지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김숙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뉴스레터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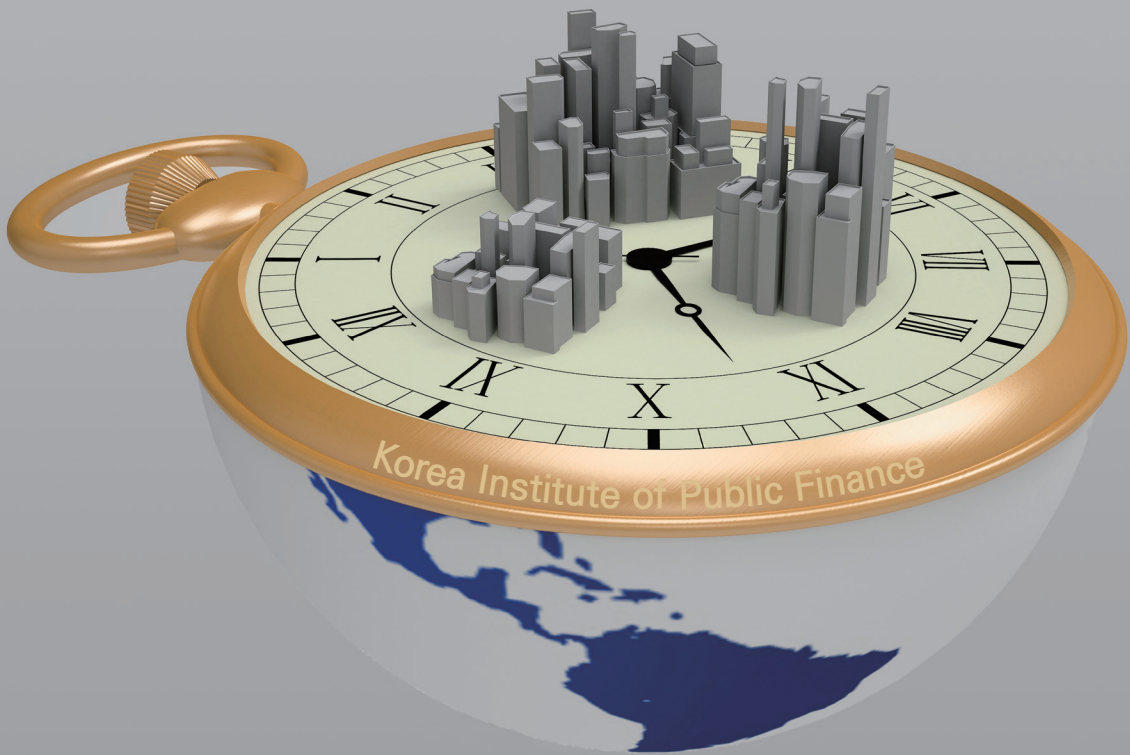
■ **발행인**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495(센터), <http://gafsc.kipf.re.kr>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18년 10월 26일 발행